

현대 중국어 ABB식 형용사 부사어의 의미지향 연구

윤애경*

◁ 목 차 ▷

- I. 서론
 - II. 술어를 의미지향하는 ABB식 형용사 부사어
 - III. 명사성 성분을 의미지향하는 ABB식 형용사 부사어
 - IV. 결론
-

I. 서론

현대 중국어에서 ABB식 형용사는 묘사성이 매우 강한 어휘이다. ABB식 형용사는 문장에서 부사어, 관형어, 술어, 보어 등 각종 문장 성분을 담당할 수가 있다. 이 가운데 ABB식 형용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할 때 그 의미지향 문제는 복잡하다.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술어 앞에서 술어를 수식하는 성분이다. ABB식 형용사 역시 술어 앞에 놓여 그 뒤의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들 중에는 의미적으로 뒤의 술어가 아닌 다른 성분을 지향하는 것도 있다.¹⁾ 다음의 예를 보자.

- (1) 他惡狠狠地砸地上。
(그는 표독스럽게 땅을 짚었다.)
- (2) 河對面的大堤上，沒有一個人影，只有一株老槐樹，孤零零地立著。
(강 맞은편의 큰 제방 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오래된 회화나무

*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1) 呂叔湘(2013:52)은 구조적으로 A가 B에 속하더라도 의미적으로 A가 C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한 그루만 외롭게 서 있다.)

(3) 亮晶晶地搭了一個大寶塔。

(반짝반짝 빛나게 큰 보탑을 하나 세웠다.)

(1)~(3)에서 ABB식 형용사는 모두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서 술어의 앞에 출현하고 있다. 이들 ABB식 형용사의 형식적인 위치는 같지만 각 문장에서 ABB식 형용사가 의미적으로 묘사하는 대상은 각기 다르다. (1)에서 부사어로 쓰인 ABB식 형용사 '惡狠狠'은 술어 동사 '砸'가 나타내는 동작의 양상을 묘사함으로써 술어를 의미지향한다. 반면에 (2)와 (3)의 부사어 '孤零零'과 '亮晶晶'은 모두 술어 동사가 아닌 명사성 성분을 의미지향한다. 통사적으로 ABB식 형용사와 이들 명사성 성분과의 관계는 ABB식 형용사와 술어와의 관계보다 소원하다. 하지만 (2)에서 ABB식 형용사는 명사성 성분인 주어를 의미지향하며, 주어의 처지를 묘사한다. (3)에서는 술어 뒤에 출현하는 명사성 성분인 빈어를 의미지향하며, 빈어가 가리키는 사물의 모습을 묘사한다. 따라서 (2)와 (3)의 ABB식 형용사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와 빈어 성분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바꿀 수 있다.

(2') 孤零零的老槐樹

(3') 亮晶晶的大寶塔

통사 구조상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성분들끼리 의미상으로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 사이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현대 중국어 부사어의 의미지향 문제는 비교적 복잡한데, 특히 ABB식 형용사가 부사어로 사용될 때는 의미상으로 명사성 성분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고는 ABB식 형용사 부사어의 의미지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부사어와 다른 문장 성분들과의 의미 구조 관계를 관찰하고자 한다.

국내의 어학분야 의미지향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의 의미지향 연구의 대부분은 현대 중국어 보어의 의미지향에 대한 연구이다. 보어의 의미지향에 대한 연구에는 崔圭鈺²⁾(1998)과 孟春玲·尹有貞(2009), 尹舒姬(2011)가 있다. 이들은 각각

2) 한국인 이름은 번체자로, 중국인 이름은 간체자로 적었다.

현대 중국어 결과보어의 의미지향, 이음절 형용사보어의 의미지향, 'NP1+把+NP2+V+得+C' 문형에서 C의 의미지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보어가 아닌 성분의 의미지향에 대한 연구에는 俞善英(2005)이 있는데, 俞善英(2005)은 현대 중국어 범위부사의 의미지향을 연구하였다. 중국에서는 張世才(1999)가 부사어로 쓰인 형용사의 의미지향과 다른 부사어와의 어순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부사어로 쓰인 형용사의 의미가 施事者를 지향하는 경우와 受事者를 지향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고 이것을 다시 세분화하였다. 王立弟·顧陽(2000)은 의미적으로 문장의 빈어를 지향하는 부사어 수식어가 출현하기 위한 의미 조건, 빈어를 지향하는 부사어의 통사적 특징, 부사어가 빈어를 지향하는 현상의 발생 토대와 이것이 구조에 미치는 제약에 대해 밝혔다. 張國憲(2005)은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항구와 임시, 의식과 무의식, 주관과 객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고의 연구 범위는 부사어로 쓰이는 ABB식 형용사로 제한한다. 본고는 우선 北京大學計算語言學研究所에서 개발한 『現代漢語語法信息詞典』(2000)과 王國璋·吳淑春·王幹楨·魯善夫的『漢語重疊形容詞用法例釋』(1996)에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는 ABB식 형용사 363개를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 부사어로 사용된 예문이 11개 이상 검색이 되는 총 154개의 ABB식 형용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고는 北京語言大學 'BCC漢語語料庫'의 문학 영역 말뭉치를 사용하였다.³⁾ 참고문헌 상의 예문을 재인용하기도 하였다.

3) 'BCC漢語語料庫'는 종합, 문학, 간행물, 웨이보(微博), 과학기술, 고대 중국어 등으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 'BCC漢語語料庫'에는 약 150억 자의 글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종합'에 약 10억 자, '문학'에 약 30억 자, '간행물'에 약 20억 자, '웨이보(微博)'에 약 30억 자, '과학기술'에 약 30억 자, '고대 중국어'에 약 20억 자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문학', '웨이보(微博)', '과학기술' 가운데 '문학' 영역의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웨이보(微博)'에는 비문법적인 표현들이 많으며, ABB식 형용사는 '과학기술' 영역에서보다는 '문학' 작품에서 더 많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II. 술어를 의미지향하는 ABB식 형용사 부사어

본고는 부사어의 위치에서 ABB식 형용사의 의미가 지향하는 성분이 각 ABB식 형용사의 의미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한 154개의 ABB식 형용사 가운데 술어를 주로 의미지향하는 ABB식 형용사는 총 81개로, 이 81개의 ABB식 형용사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의미 유형	ABB식 형용사	수량
감정 · 표정 · 눈빛	癡呆呆 樂顛顛 樂呵呵 樂陶陶 樂滋滋 淚汪汪 愣怔怔 美滋滋 木呆呆 怒冲冲 撲簌簌 氣冲冲 氣鼓鼓 氣哼哼 氣呼呼 氣乎乎 氣洶洶 氣咻咻 氣籲籲 怯生生 恬密密 ⁴⁾ 甜膩膩 甜絲絲 甜滋滋 喜洋洋 喜滋滋 喜孜孜 笑哈哈 笑呵呵 笑咪咪 笑嘻嘻 笑吟吟 笑盈盈 興冲冲 賊溜溜 賊忒忒 戰兢兢 直呆呆 直盯盯 直勾勾 直愣愣 直溜溜	42
언행 · 태도	顛巍巍 顛悠悠 脆生生 大咧咧 滴溜溜 惡狠狠 幹巴巴 急冲冲 急火火 急慌慌 急煎煎 急忙忙 急切切 假惺惺 嬌滴滴 亂紛紛 亂哄哄 慢騰騰 慢吞吞 慢悠悠 鬧哄哄 鬧嚷嚷 齊刷刷 齊嶄嶄 氣昂昂 氣喘喘 輕飄飄 傻呵呵 傻乎乎 傻愣愣 酸溜溜 文縹縹 雄赳赳 羞答答 虛飄飄 硬梆梆 直統統 醉醺醺	38
담음	活脫脫	1
총계		81

[표1] 의미 유형에 따른 술어 지향 ABB식 형용사의 분류

위의 의미 유형을 나타내는 ABB식 형용사의 의미는 주로 술어를 지향하는데 아래의 예를 보자.

4) '甜蜜蜜', '甜膩膩', '甜絲絲', '甜滋滋', '酸溜溜'는 다의어로 어떠한 '맛'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부사어로 쓰일 때는 대부분 어떠한 감정을 나타낸다. 본고는 ABB식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일 때의 의미지향에 관한 연구이므로 이러한 다의어의 경우 부사어로 쓰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의미 유형을 분류하였다.

- (4) 李叔叔就坐在矮榻上樂呵呵地招手笑道。 : 감정
(李 삼촌이 낮은 침대 위에 앉아서 즐겁게 손을 흔들며 허허 웃으면서 말했다.)
- (5) 小李笑嘻嘻走過來。 : 표정
(李군이 희희 거리며 걸어왔다.)
- (6) 他也直盯盯地看著我。 : 눈빛
(그도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
- (7) 沒過多久，六個人慢騰騰地走了回來。 : 언행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섯 사람이 느릿느릿 돌아왔다.)
- (8) 幾個人氣昂昂地甩手走了。 : 태도
(몇 사람이 기개 있게 손을 내저으며 갔다.)
- (9) 她活脫脫地是小玉啊！ : 일치
(그녀는 玉양을 신통하게 닮았어!)

이들 ABB식 형용사의 의미는 물론 주어의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본고는 이들 ABB식 형용사의 의미가 주어가 아닌 술어를 지향한다고 본다. 그것이 나타내는 상태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1)번 예문 ‘他惡狠狠地砸地上。’에서 ‘惡狠狠’은 땅을 찧을 때의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낼 뿐, 반드시 그가 표독스러운 사람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4)~(9)에서 ABB식 형용사가 묘사하는 상태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감정·표정·눈빛은 어느 한 때의 상태이지, 그 순간의 상태로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낼 수는 없다. 어떠한 언행을 할 때의 상태나 태도 역시 일시적이며, 행동이나 모양이 매우 닮은 상태를 나타내는 ‘活脫脫’도 술어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의미가 술어를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가 수식어로 기능할 때 관형어보다는 부사어로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ABB식 형용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 예문과 관형어로 쓰이는 예문의 수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

5) [표2] 안의 ABB식 형용사는 부사어로 쓰이는 예문과 관형어로 쓰이는 예문의 출현 비율을 비교했을 때, 부사어로 쓰이는 예문의 출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였다.

ABB식 형용사	부사어로 쓰이는 예문		관형어로 쓰이는 예문	
	수량	백분율	수량	백분율
直町町	73	98.65%	1	1.35%
假惺惺	59	98.33%	1	1.67%
急火火	70	95.89%	3	4.11%
急煎煎	23	95.83%	1	4.17%
撲簌簌	394	95.63%	18	4.37%
急慌慌	60	95.24%	3	4.76%
直勾勾	1199	94.41%	71	5.59%
滴溜溜	1240	94.01%	79	5.99%
急忙忙	151	93.79%	10	6.21%
惡狠狠	122	93.13%	9	6.87%
急切切	23	92.00%	2	8.00%
興冲冲	2003	91.80%	179	8.20%
癡呆呆	108	90.76%	11	9.24%
樂滋滋	177	90.31%	19	9.69%
直溜溜	27	90.00%	3	10.00%
戰兢兢	89	89.90%	10	10.10%
直楞楞	506	89.56%	59	10.44%
笑嘻嘻	6143	89.13%	749	10.87%
樂顛顛	129	88.97%	16	11.03%
齊刷刷	1353	88.49%	176	11.51%
急冲冲	380	87.76%	53	12.24%
樂呵呵	1281	85.97%	209	14.03%
美滋滋	359	85.07%	63	14.93%
直呆呆	11	84.62%	2	15.38%
慢悠悠	1467	84.07%	278	15.93%
氣哼哼	567	83.63%	111	16.37%
氣洶洶	67	82.72%	14	17.28%
氣冲冲	2349	81.22%	543	18.78%
氣呼呼	1623	80.51%	393	19.49%
活脫脫	486	80.33%	119	19.67%
喜滋滋	583	80.30%	143	19.70%
氣喘喘	89	79.46%	23	20.54%
氣乎乎	118	79.19%	31	20.81%

慢騰騰	450	79.09%	119	20.91%
愣怔怔	15	78.95%	4	21.05%
笑吟吟	3395	78.62%	923	21.38%
笑哈哈	288	78.26%	80	21.74%
慢吞吞	1555	77.79%	444	22.21%
笑盈盈	874	77.69%	251	22.31%
怒冲冲	409	77.61%	118	22.39%
傻呵呵	130	76.92%	39	23.08%
笑咪咪	3527	76.46%	1086	23.54%
笑呵呵	2802	76.45%	863	23.55%
賊忒忒	12	75.00%	4	25.00%
輕飄飄	1460	74.83%	491	25.17%
亂哄哄	546	72.90%	203	27.10%
氣咻咻	239	72.64%	90	27.36%
大咧咧	428	72.30%	164	27.70%
木呆呆	66	70.97%	27	29.03%
傻愣愣	259	68.34%	120	31.66%
怯生生	747	67.66%	357	32.34%
淚汪汪	387	67.66%	185	32.34%
亂紛紛	207	67.65%	99	32.35%
顛巍巍	42	66.67%	21	33.33%
直統統	14	66.67%	7	33.33%
氣鼓鼓	557	64.92%	301	35.08%
氣昂昂	246	64.91%	133	35.09%
齊嶄嶄	15	62.50%	9	37.50%
顛悠悠	66	61.68%	41	38.32%
傻乎乎	608	60.32%	400	39.68%
樂陶陶	21	60.00%	14	40.00%
虛飄飄	38	59.38%	26	40.63%
氣籲籲	42	57.53%	31	42.47%
喜洋洋	59	55.66%	47	44.34%
羞答答	185	53.01%	164	46.99%
喜孜孜	498	51.71%	465	48.29%
幹巴巴	268	51.34%	254	48.66%
雄赳赳	119	51.29%	113	48.71%

脆生生	233	50.76%	226	49.24%
醞醞醞	228	50.22%	226	49.78%
甜蜜蜜	38	43.68%	49	56.32%
賊溜溜	42	37.17%	71	62.83%
鬧嚷嚷	15	36.59%	26	63.41%
硬梆梆	105	29.83%	247	70.17%
甜滋滋	15	28.30%	38	71.70%
文縷縷	108	27.48%	285	72.52%
酸溜溜	224	26.83%	611	73.17%
甜膩膩	22	25.88%	63	74.12%
嬌滴滴	377	20.54%	1458	79.46%
鬧哄哄	62	14.00%	381	86.00%
甜絲絲	15	11.72%	113	88.28%

[표2] 술어 지향 ABB식 형용사가
부사어와 관형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빈도 비교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술어를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 가운데 관형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빈도가 부사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빈도보다 높은 것은 ‘甜蜜蜜’, ‘賊溜溜’, ‘鬧嚷嚷’, ‘硬梆梆’, ‘甜滋滋’, ‘文縷縷’, ‘酸溜溜’, ‘甜膩膩’, ‘嬌滴滴’, ‘鬧哄哄’, ‘甜絲絲’, 이렇게 11개였다. 의미가 술어를 주로 지향하는 81개의 ABB식 형용사 가운데 이 11개를 제외하고 86%가 넘는 숫자가 관형어보다는 부사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었다.

의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성분들끼리 통사 구조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의미가 술어를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가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위치에 많이 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가 술어를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 가운데 부사어보다 관형어로 더 많이 쓰이는 것들을 살펴보면 ‘甜蜜蜜’, ‘甜滋滋’, ‘甜膩膩’, ‘甜絲絲’, ‘酸溜溜’, ‘硬梆梆’과 같은 다의어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다의어는 부사어의 위치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와 관형어의 위치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재미 있는 언어 현상으로 이에 대해서는 본고가 아닌 다른 곳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Ⅲ. 명사성 성분을 의미지향하는 ABB식 형용사 부사어

본고에서 분석한 154개의 ABB식 형용사 가운데 술어 외의 명사성 성분을 주로 의미지향하는 ABB식 형용사는 총 73개로, 이 73개의 ABB식 형용사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다.

의미 분류	ABB식 형용사	수량
빛 · 색	暗沉沉 白生生 光閃閃 黑洞洞 黑乎乎 黑糊糊 黑忽忽 黑漆漆 黑黢黢 紅彤彤 紅通通 紅撲撲 紅豔豔 灰溜溜 灰蒙蒙 昏沉沉 黃澄澄 金燦燦 亮晶晶 亮閃閃 綠油油 明晃晃 陰沉沉	23
형상	赤裸裸 赤條條 汗津津 黑壓壓 緊繃繃 亂蓬蓬 亂糟糟 毛茸茸 密麻麻 密匝匝 水淋淋 水靈靈 水汪汪 血淋淋 霧蒙蒙 圓溜溜 直挺挺 皺巴巴	18
온도 · 습도	火辣辣 冷冰冰 冷清清 冷颼颼 涼颼颼 暖烘烘 暖融融 暖洋洋 熱烘烘 熱乎乎 熱呼呼 熱辣辣 熱騰騰 濕淋淋 濕漉漉	15
기운	病恹恹 好端端 活潑潑 活生生 軟綿綿 軟塌塌 死板板 暈乎乎	8
분위기	孤零零 孤伶伶 靜悄悄 靜蕩蕩 空落落 空蕩蕩 陰森森	7
향기	香噴噴	1
무게	沉甸甸	1
총계		73

[표3] 의미 유형에 따른 명사성 성분 지향 ABB식 형용사의 분류

위의 의미 유형을 나타내는 ABB식 형용사의 의미는 주로 술어 외의 명사성 성분을 지향하는데 아래의 예를 보자.

- (10) 雨水在車窗上亮晶晶地流著。 : 빛
(빗물이 차창에서 반짝반짝 흐르고 있다.)
- (11) 太陽竟紅彤彤地照在了窗前。 : 색
(태양이 창가를 새빨강게 비추었다.)
- (12) 衣服皺巴巴地穿著, 真難看。 : 형상
(옷이 주글주글 입혀져 있어서 정말 보기 싫다.)

- (13) 太陽暖洋洋地照著。: 온도
(태양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다.)
- (14) 我只看見塔娜濕淋淋地坐在馬上。: 습도
(나는 타나가 흠뻑 젖어서 말에 앉아 있는 것만 보았다.)
- (15) 他病懨懨地躺著。: 기운
(그가 비실비실 누워있다.)
- (16) 日上三竿, 台上靜悄悄地不見人影。: 분위기
(해가 중천에 떴는데, 무대 위는 아주 고요한 게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 (17) 米酒香噴噴地散出熱氣。: 향기
(미주가 향긋하게 열기를 퍼트렸다.)
- (18) 樹枝上沉甸甸地掛滿了果子。: 무게
(나뭇가지에 과일이 묵직하게 가득 달려 있다.)

이들 ABB식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 역시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들 ABB식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는 비교적 지속적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의 의미가 술어 외의 명사성 성분을 지향한다고 본다. 빛, 색, 형상, 온도, 습도, 기운, 분위기, 향기, 무게 등은 어떠한 동작이 끝났다고 해서 금방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명사성 성분을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는 그것이 지향하는 것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10)의 ‘亮晶晶’, (11)의 ‘紅彤彤’, (13)의 ‘暖洋洋’, (17)의 ‘香噴噴’, (18)의 ‘沉甸甸’은 모두 그것이 묘사하는 대상 고유의 성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12)의 ‘縹巴巴’, (14)의 ‘濕淋淋’, (15)의 ‘病懨懨’, (16)의 ‘靜悄悄’가 나타내는 의미는 이것이 묘사하는 대상의 고유한 성질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것이 묘사하는 상태의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縹巴巴’, ‘濕淋淋’, ‘病歪歪’, ‘靜悄悄’가 나타내는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어떠한 행위가 필요하다.

ABB식 형용사의 의미가 술어 외의 명사성 성분을 지향할 때, 그것은 대부분 주어를 지향하지만 빈어를 지향하기도 한다. 위의 예에서 (10), (11), (12), (13), (14), (15), (16), (17) 중의 ABB식 형용사는 모두 주어를 지향하는데, (18) 중의 ABB식 형용사 ‘沉甸甸’만이 빈어 ‘果子’를 지향한다. 부사어로 쓰인 ABB식 형용사가 빈어를 지향하는 경우는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9) 熱呼呼地吃一碗面條。
(따끈하게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 (20) 上面灰蒙蒙地籠罩著一片寒霧。
(위에는 차가운 안개가 뿌옇게 뒤덮여 있다.)
- (21) 她水靈靈瞪大了眼睛問道。
(초롱초롱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19)의 ‘熱呼呼’는 빈어 ‘面條’를 지향한다. 이때의 빈어는 受事이다. (20)의 ‘灰蒙蒙’이 지향하는 빈어 ‘寒霧’는 존현문 상의 빈어이다. (18)의 빈어 ‘沉甸甸’도 마찬가지로인데, 이렇게 부사어로 쓰인 ABB식 형용사가 빈어를 지향할 때, 그 빈어는 존현문의 빈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때의 빈어는 施事이다. (21)의 빈어 ‘水靈靈’이 지향하는 빈어 ‘眼睛’은 주어 ‘她’의 신체 일부이다. 王立弟·顧陽(2000)은 빈어를 지향하는 부사어의 출현을 위해서는 의미적으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의미가 동작의 결과로 생겨난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결과 상태는 동작의 주체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제어한 결과여야 한다. 세 번째로 이러한 결과 상태는 동작을 제한한 행위 방식을 통해서 실현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주체가 없는 존현문에서 뒤의 두 가지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王立弟·顧陽(2000)에 따르면 (19)~(21)에서 ‘熱呼呼’, ‘灰蒙蒙’, ‘水靈靈’은 모두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상태를 묘사한다. 즉, 먹고, 뒤덮고, 눈을 뜨는 행위로 인해서 따끈하고, 뿌옇고, 초롱초롱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존현문에 쓰인 ‘灰蒙蒙’을 제외하고 (19)의 ‘熱呼呼’와 (21)의 ‘水靈靈’이 묘사하는 상태는 동작의 주체가 의식적으로 행동한 결과이며, 그 행위 방식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본고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의미가 술어 외의 명사성 성분을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가 수식어로 기능할 때 부사어보다는 관형어로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ABB식 형용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 예문과 관형어로 쓰이는 예문의 수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

6) [표4] 안의 ABB식 형용사는 부사어로 쓰이는 예문과 관형어로 쓰이는 예문의 출현 비율을 비교했을 때, 관형어로 쓰이는 예문의 출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였다.

ABB식 형용사	부사어로 쓰이는 예문		관형어로 쓰이는 예문	
	수량	백분율	수량	백분율
黑洞洞	36	2.12%	1660	97.88%
綠油油	24	2.80%	833	97.20%
水靈靈	11	3.06%	348	96.94%
金燦燦	30	3.36%	863	96.64%
毛茸茸	33	3.36%	948	96.64%
灰蒙蒙	44	3.42%	1243	96.58%
紅豔豔	20	4.71%	405	95.29%
黑乎乎	80	4.98%	1527	95.02%
圓溜溜	13	5.10%	242	94.90%
皺巴巴	21	5.16%	386	94.84%
黃澄澄	33	5.17%	605	94.83%
香噴噴	56	5.26%	1008	94.74%
黑忽忽	20	5.63%	335	94.37%
熱騰騰	57	5.64%	954	94.36%
熱乎乎	35	6.25%	525	93.75%
血淋淋	251	6.27%	3752	93.73%
黑黢黢	11	6.59%	156	93.41%
紅彤彤	38	6.95%	509	93.05%
黑糊糊	34	6.97%	454	93.03%
明晃晃	205	7.40%	2566	92.60%
白生生	28	7.71%	335	92.29%
空蕩蕩	183	8.02%	2099	91.98%
活生生	269	8.74%	2810	91.26%
紅撲撲	28	8.86%	288	91.14%
熱烘烘	21	8.90%	215	91.10%
光閃閃	322	9.13%	3206	90.87%
亮閃閃	43	9.95%	389	90.05%
黑漆漆	178	10.25%	1558	89.75%
暖烘烘	19	10.38%	164	89.62%
紅通通	30	10.42%	258	89.58%
冷颼颼	17	10.49%	145	89.51%
熱呼呼	11	11.11%	88	88.89%
水汪汪	111	11.26%	875	88.74%

亮晶晶	162	11.55%	1241	88.45%
沉甸甸	173	12.61%	1199	87.39%
空落落	16	13.01%	107	86.99%
暖融融	17	13.39%	110	86.61%
亂蓬蓬	40	13.99%	246	86.01%
濕漉漉	197	14.43%	1168	85.57%
暖洋洋	74	15.01%	419	84.99%
霧蒙蒙	29	15.34%	160	84.66%
暗暗沉	17	17.00%	83	83.00%
緊繃繃	17	17.17%	82	82.83%
涼颼颼	26	17.45%	123	82.55%
汗津津	23	20.18%	91	79.82%
病恹恹	37	20.44%	144	79.56%
亂糟糟	259	21.86%	926	78.14%
濕淋淋	133	22.24%	465	77.76%
黑壓壓	671	23.55%	2178	76.45%
死板板	18	24.00%	57	76.00%
火辣辣	378	24.02%	1196	75.98%
熱辣辣	91	26.45%	253	73.55%
水淋淋	84	27.36%	223	72.64%
陰沉沉	189	29.39%	454	70.61%
孤伶伶	53	29.94%	124	70.06%
冷冰冰	1282	31.38%	2804	68.62%
活潑潑	28	32.56%	58	67.44%
暈乎乎	43	33.86%	84	66.14%
密麻麻	28	34.15%	54	65.85%
密匝匝	27	35.06%	50	64.94%
冷清清	68	38.20%	110	61.80%
陰森森	510	38.26%	823	61.74%
軟綿綿	627	38.42%	1005	61.58%
孤零零	697	38.42%	1117	61.58%
好端端	511	43.71%	658	56.29%
灰溜溜	92	44.23%	116	55.77%
赤裸裸	693	45.50%	830	54.50%
昏沉沉	108	47.16%	121	52.84%

軟塌塌	39	47.56%	43	52.44%
靜蕩蕩	19	57.58%	14	42.42%
赤條條	323	61.17%	205	38.83%
靜悄悄	972	72.81%	363	27.19%
直挺挺	1664	84.42%	307	15.58%

[표4] 명사성 성분 지향 ABB식 형용사가
부사어와 관형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빈도 비교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술어 외의 명사성 성분을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 가운데 부사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빈도가 관형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빈도보다 높은 것은 ‘靜蕩蕩’, ‘赤條條’, ‘靜悄悄’, ‘直挺挺’, 이렇게 4개뿐이었다. 의미가 술어 외의 명사성 성분을 주로 지향하는 73개의 ABB식 형용사 가운데 이 4개를 제외하고 94%가 넘는 숫자가 부사어보다는 관형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었다.

의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성분들끼리 통사 구조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의미가 주어나 빈어를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가 그들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위치에 많이 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의미가 주어나 빈어를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가 관형어 외에 부사어로도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張國憲(2005)에 따르면 부사어는 화자의 주관을 표현하는 어법 수단 중의 하나이다.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 명사성 성분을 지향하는 수식어를 부사어의 위치에 사용할 수가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22) 粗壯的男人緊貼著耿東亮坐下來，耿東亮感覺到他的身上熱烘烘的氣息。

(건장한 남자가耿東亮에게 달라붙어 앉자耿東亮은 그의 몸에서 뜨거운 숨결을 느꼈다.)

(23) 火熱的男性氣息熱烘烘地噴在耳後。

(불같이 뜨거운 남자의 숨결을 귀 뒤로 뜨겁게 내쉬었다.)

(22)에서 ‘熱烘烘’이 숨결(氣息)의 온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면, (23)의 ‘熱烘烘’은 화자의 주관성을 더 많이 담고 숨결(氣息)의 온도

를 묘사하고 있다. (22)에서 ‘熱烘烘’은 耿東亮이 느끼는 남자의 뜨거운 숨결을 묘사한다. 그 남자는 숨결의 온도를 耿東亮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耿東亮에게 바짝 달라붙어 앉아 있다. (22)에서 ‘熱烘烘’은 숨결의 온도가 높음을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한다. (23)에서 ‘氣息’를 수식하는 관형어인 ‘火熱’는 ‘熱烘烘’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 앞에서 ‘火熱’가 ‘氣息’를 꾸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비슷한 의미의 ‘熱烘烘’를 한 번 더 써주는 것은 정열적인 남자의 숨결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熱烘烘’은 숨결의 실질적인 온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정열적인 남자의 어떠한 행동의 온도, 즉 행동의 태도를 함께 드러낸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 (24) 亂蓬蓬的頭髮已經遮住了眉毛，赤裸的小腿上滿是疙瘩和癩泡。
(형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미 눈썹을 덮었고, 드러낸 종아리는 종기와 물집 투성이다.)
- (25) 臉上濕漉漉地還掛著淚珠兒，赤褐色的頭髮亂蓬蓬地披在腮頰上。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방울이 촉촉하게 맺혀있고, 적갈색의 머리카락은 덩수룩하게 뺨을 덮고 있다.)

(24)와 (25)에서의 ‘亂蓬蓬’은 모두 머리카락이 형클어진 모습을 형용한다. 머리카락이 형클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나 주관적인 느낌에 있어서 화자의 주관성이 (24)보다 (25)에서 더 강하게 표현된다.

IV. 결론

본고는 ABB식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일 때의 의미지향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한 154개의 ABB식 형용사 가운데 술어를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와 술어 외의 명사성 성분을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의 수량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술어 지향	명사성 성분 지향	총계
수량	81	73	154
백분율	52.6	47.4	100

[표5] 술어를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와
명사성 성분을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의 수량 비교

술어를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가 술어 외의 명사성 성분을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보다 그 수가 많기는 하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다.

본고는 부사어의 위치에서 ABB식 형용사의 의미가 지향하는 성분이 각 ABB식 형용사의 의미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미 유형에 따라 ABB식 형용사를 분류했을 때, 감정·표정·눈빛·언행·태도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ABB식 형용사가 술어를 주로 지향하며, 빛·색·형상·온도·습도·기운·분위기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ABB식 형용사가 명사성 성분을 주로 지향함을 알 수 있었다. 술어를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가 묘사하는 상태는 그 지속시간이 짧고 비교적 일시적이며, 명사성 성분을 주로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가 묘사하는 상태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다.

명사성 성분을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 가운데 대부분은 주어를 지향하지만, 빈어를 지향하기도 한다. ABB식 형용사 부사어가 빈어를 지향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ABB식 형용사가 受事 빈어를 지향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ABB식 형용사가 施事 빈어를 지향하는 경우인데, 이때의 빈어는 존현 문 상의 빈어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BB식 형용사가 지향하는 빈어가 주어의 신체 일부인 경우이다.

본고는 또 ABB식 형용사의 의미 특징과 의미 지향이 통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성분들끼리 통사 구조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ABB식 형용사가 수식어로 기능할 때 술어를 주로 지향하는 것은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위치에 많이 출현하고, 명사성 성분을 지향하는 것은 명사성 성분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위치에 더 많이 출현한다. 명사성 성분을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를 관형어가 아닌 부사어로 사용하는 것은 화자의 주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ABB식 형용사가 부사어로 사용될 때는 특히 의미상으

로 명사성 성분을 지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BB식 형용사는 현대 중국어에서 가장 묘사성이 강한 어휘이다. 우리는 ABB식 형용사를 사용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상태를 생동감 넘치게 묘사할 수 있는데, 이 때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명사성 성분을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라 할지라도 이것을 관형어가 아닌 부사어의 위치에 둬으로써 화자의 주관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명사성 성분을 지향하는 ABB식 형용사 가운데 부사어의 위치에 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ABB식 형용사가 어떠한 상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呂叔湘《漢語語法分析問題》北京，商務印書館，2013.
- 王國璋·吳淑春·王幹楨·魯善夫《現代漢語重疊形容詞用法例釋》北京，商務印書館，1996.
- 北京大學計算語言學研究所《現代漢語語法信息詞典》北京，2000.
- 尹愛庚《漢語ABB式形容詞的形態特征與句法功能研究》上海，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2015.
- 孟春玲·尹有貞〈현대 중국어 'NP1+把+NP2+V+得+C' 문형 분석 - C의 의미지향과 문형의 변환형식을 중심으로〉，《中國語文學論集》54호，2009.
- 俞善英〈현대한어 범위부사의 분류와 의미지향 연구〉，《中國語文學論集》32호，2005.
- 尹舒姬〈이음절 형용사보어 문장에서의 의미지향〉，《中國語文學》57집，2011.
- 崔圭鉢〈現代 中國語 結果補語의 意味指向〉，《中國語文學》31집，1998.
- 盧英順〈語義指向研究漫談〉，《世界漢語教學》1995年 3期.
- 王立弟·顧陽〈“賓語指向”的狀語修飾語〉，《面臨新世紀挑戰的現代漢語語法研究》山東，山東教育出版社，2000.
- 張愛民〈形容詞重疊式作狀語與作其他成分的比較〉，《語言教學與研究》1996年 2期.
- 張國憲〈性狀的語義指向規則及句法異位的語用動機〉，《中國語文》2005年 1期.
- 張世才〈形容詞作狀語的語義指向與在句中的位置〉，《喀什師範學院學報》1999年 20卷 1期.
- 周剛〈語義指向分析芻議〉，《語文研究》1999年 3期.

【中文提要】

ABB式形容詞在句中能充當各種句法成分。其中，ABB式形容詞作狀語時，其語義指向問題很複雜。表示心情、神情、目光、言行、態度等意義的ABB式形容詞主要指向謂語，表示光線、色彩、形狀、溫度、濕度、精神、氣氛、溫度、輕重等意義的ABB式形容詞主要指向謂語之外的名詞性成分。主要指向謂語的ABB式形容詞所描寫的狀態一般是臨時的，主要指向名詞性成分的ABB式形容詞所描寫的狀態相對來說是持續的。作狀語的ABB式形容詞指向賓語的情況有三種。第一種是ABB式形容詞指向受事賓語。第二種是ABB式形容詞指向施事賓語，此時的賓語是存現句中的賓語。第三種是ABB式形容詞所指向的賓語是主語所表示的主體身體的一部分。語義上有直接關係的成分之間在句法結構上也有直接關係。因此，ABB式形容詞作狀語時，主要指向謂語的出現在狀語位置上的頻率高，主要指向名詞性成分的出現在定語位置上的頻率高。把指向名詞性成分的ABB式形容詞放在狀語位置上，可以加強說話者的主觀性。ABB式形容詞是在現代漢語中描寫性最强的詞彙。我們可以用ABB式形容詞來生動地描寫現實世界中所存在的各種狀態。此時，反映說話者主觀情感的情況很多。指向名詞性成分的ABB式形容詞中，可以較多出現於狀語位置的原因是因為ABB式形容詞很適合於生動地表示某種狀態，並表達說話者主觀的情感。

【主題語】

ABB식 형용사, 부사어, 의미지향, 술어, 명사성 성분

ABB式形容詞, 狀語, 語義指向, 謂語, 名詞性成分

ABB-Type Adjective, adverbial phrase, semantic orientation, predicate, nominal constituent